



KIA 타이거즈가 16일 광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SK에 5-3으로 역전, 상큼한 첫 승을 거둔 뒤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거침없는 호랑이, 지친 비룡 잡았다



## 로페즈 파워투 8이닝 3실점 '첫승' 오늘 선발 윤석민 - 송은범 '맞대결'

KIA가 2009 한국시리즈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KIA 타이거즈는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이종범의 결승타에 힘입어 5-3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1차전 KIA의 마운드를 지킨 로페즈는 8이닝동안 6피안타(1홈런) 3사사구 7탈삼진 3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12년만에 KIA의 한국시리즈 승리투수가 됐다.

7회까지 양팀은 쫓고 쫓는 숨막힌 승부를 펼치며 2009 포스트시즌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다. 선취점은 SK가 가져갔다. 3회초 2사 3루에서 박재홍의 적시타로 1점을 챙긴 SK는 4회 정근우와 박정권의 연속 2루타로 0-2를 만들었다. 끝없는 수비가 추가 실점을 막았다. 1-3루의 위기에서 나온 나주환의 직선타구를 1루수 최희섭이 잡은 뒤 곧바로 1루 베

이스를 밟으며 스타트를 끊은 주자까지 동시에 잡아냈다. 4회말 KIA의 공격에 시동이 걸렸다. 선두타자 김원섭이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시작된 4회말 1사 1-3루에서 김상현의 희생플라이로 1-2. 6회말 KIA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이용규가 바뀐 투수 고효준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낸 뒤 김원섭의 희생번트로 2루를 밟았다. 대타 나지완의 유격수앞 땅볼로 2사 3루. 투

아웃 이후 최희섭과 김상현이 연속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베이스를 가득 채웠다. 타석에 들어선 6번 이종범은 좌중간을 가르치는 적시타로 승부를 3-2로 뒤집었다. 7회초 동점을 만든 정상호의 솔로홈런이 터졌지만 8회말 노장 이종범이 다시 한 번 영웅이 됐다. 1사 2-3루에서 이종범이 우전안타를 터트리며 두 번째 역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이어진 타석에서 주장 김상훈은 10구째 승부끝에 안타를 추가하며 1타점을 더했다. 마무리로 등판한 유동훈은 첫 타자 최정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김재현과 나주환을 각각 땅볼과 플라이로 요리하며 한국시리즈 1차전을 마무리 지었다. 17일 2차전에선 KIA 윤석민-SK 송은범이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역전타에 결승타 '원맨쇼' '슬라이더 노려친게 주효'

### 첫승 주역 이종범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아 어떤 불이든 쳐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주효했던 것 같다. 또한 가장 중요한 1차전에서 팀의 균형으로서 역할을 해내 무엇보다도 기쁘다." KIA 타이거즈 이종범이 한국시리즈 1차전 MVP 소감을 밝혔다. 이종범은 이날 3-3으로 맞선 8회말 1사 2-3루에서 찬금 같은 결승타를 때리는 등 3타수 2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종범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8회 적시타를 친 상황에 대해 "슬라이더를 던질 것 같아서 노리고 있었다"며 "바깥쪽으로 약간 높게 들어와서 안타가 됐다

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시즌을 경험하지 못한 후배들이 내일부터는 한결 부드러워질 것 같다"며 "큰 경기의 분위기를 경험했으니 앞으로는 후배들이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1997년 한국시리즈 우승 때와 비교해달라는 말에 "그때는 멤버가 정말 화려했다"며 "지금은 나를 비롯해 김중국, 이대진 등만이 한국시리즈를 경험했다. 지금 우승하는 게 훨씬 더 값있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종범의 활약은 KIA 선수들이 앞으로 한국시리즈를 치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수단 대부분이 큰 경기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 이종범의 '슬선수범'은 자رق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슬로비디오

## 로페즈 홈런 내주고도 침착투로 역전발판

위기의 7회가 KIA에게는 중요한 승부처가 됐다. 6회말 이종범의 2타점 적시타로 3-2로 승부가 뒤집힌 7회초 로페즈가 다시 한 번 마운드에 올랐다. 2회까지 4개의 탈삼진을 뺏으며 마운드 싸움을 벌이던 SK 가도 쿠리는 6회 이미 고효준에게 마운드를 넘겨준 상황. 선두타자 나주환을 플라이로 잡은 뒤 정상호와의 승부가 벌어졌다. 앞선 5회 폭투 상황에서 공이 빠진 줄 모르고 뒤늦게 홈

을 과고들다 태그 아웃 당했던 정상호는 원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낮게 들어간 슬라이더를 받아 가운데 담장을 넘기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팽팽하던 승부가 SK쪽으로 기울 수 있는 치명적인 홈런이었다. 그러나 로페즈는 침착하게 다음 타자 김강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SK의 공격에 찬물을 끼얹었다. 2루를 지킨 안치홍은 조동화의 안타성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내며 7

회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로페즈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한방'으로 경기의 흐름이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로페즈는 안정된 투구로 위기를 막아 낸 뒤 8회초에도 삼자범퇴를 유도하면서 8회말 KIA의 짜릿한 역전극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로페즈의 호투속에 8회말 공격을 시작한 KIA는 1사에서 최희섭의 볼넷을 시작으로 마지막 반격을 시작했다. 타에 이어

도루까지 더한 김상현은 1사 2-3루를 만들어 SK 마운드를 흔들었다. 6회 2타점 적시타를 기록했던 노장 이종범은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정대현을 상대로 뽑아낸 우전안타는 KIA의 승리를 확정짓는 결승타가 됐다. 기회와 위기, 양팀의 입장이 엇갈렸던 7회가 한국시리즈 1차전 승리팀의 향방을 갈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아기호랑이 삼남매 개막전 등장

### KS 1차전 이모저모

○광주 유치동물원의 아기 호랑이 삼남매가 타이거즈의 10번 타자로 그라운드에 올랐다. 한국시리즈 이벤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호랑이 삼남매는 선수들과 경기장에 도열해 타이거즈의 선전을 기원했다. 지난 6월 태어난 호랑이 삼남매는 KIA

의 10번째 우승을 바라는 의미에서 '아이, 브, 기아'의 이름을 얻었다.

### 서림·송정동초, 에스코트

○서림초등학교와 송정동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KIA와 SK선수단의 배번과 이름이 쓰인 유니폼을 입고 한국시리즈 무대에 오른 양팀 선수단의 에스코트를 담당했다. KIA의 최고참 이종범은 서석초등학교 야구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들 정후군의 에스코트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 양팀 감독 한마디

### 이종범 6번 기용 적중

◇조범현 KIA 감독 = 1차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선수들의 적응력을 염려했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선수들이 서투른 경향이 있었다. 중반 이후로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아졌다. 후반에는 적시타가 잘 터졌고 이종범이 중요할 때 잘 때렸다. 덕분에 경기가 우리에게 넘어왔다. 페넌트 레이스에서 우리 팀이 좋았을 때의 분위기가 오늘로 연결된 것 같다. 1승을 올린 것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연결된 것 같아서 좋

다. 이종범을 6번에 낸 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훈련할 때부터 컨디션이 가장 좋았다. 3번과 6번 타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 나주환 병살타 아쉬워

◇김성근 SK 감독 =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4회 2-0을 만들고 나주환이 병살타를 친 게 아쉽다. KIA와 경기를 하다 보면 왼손 투수가 볼넷을 많이 남발해서 자멸했는데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왔다. 투수 교체는 경우 타이밍보다는 결과 자체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송은범을 내일 선발 투수로 내기로 결정했다. 왼손 투수들이 막고 있는데 투수들이 더욱 분발해야 경기를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 투수왕국 KIA 덕아웃 여유만만

### 12년만의 큰 경기 코치들이 되레 초조

12년을 기다려온 큰 무대였지만 경기 전 KIA 덕아웃에는 예상외의 여유가 넘쳤다. 이재주, 최경환 등 특타조의 훈련으로 한국시리즈 첫날 일과를 시작한 KIA는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며 경기를 준비했다. 시즌때보다 매가 넓은 취재진이 몰려든 것을 제외하고는 덕아웃 분위기는 어느때와 다를 게 없었다. 용병 구토슨은 한국시리즈 안내 책자를 살펴보면서 망중환을 즐기기도 했다. 역대 한국 시리즈 MVP의 사진을 살펴 보면 구토슨은 특히 일본 무대에서 만났던 2001년 MVP 타이론 우즈(당시 두산)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마운드의 막내별인 양현종은 '인터뷰

전담선수'로 맹활약하며 생애 처음 갖는 가을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유망주로 팀을 이끌어온 김상훈도 여유만만이었다. KIA의 안방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은 "우승이 확정되면 텀블링을 하며 마운드로 달려나가는 세리머니를 선보이겠다"며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최호재 선수들보다 긴장한 이들은 코칭 스태프들이었다. 선수시절 여러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김중모 코치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태룡 전력분석코치는 "자식들을 수능장에 내보낸 기분이다"며 선수들을 지켜보는 코칭 스태프의 입장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